서울시, 재정비사업·車정비업 규제 완화… 영세사업자 지원

재정비촉진사업 변경심의 간소화
처리기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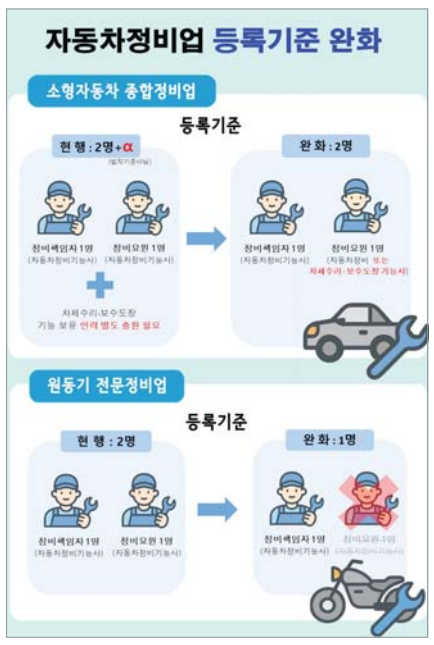
소형車종합정비업 인력난 해소
내년 3월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 경미한 변경시 '서면심의' 가능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서울시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돼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가족 친화 독서문화축제 진행

내일 정독도서관서 '온 가족 책 잔치'
도서관·평생학습관·지역서점 등 참여
다양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준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제13회 '온 가족 책 잔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 대표 독서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올해 슬로건은 '책멍 Book Talk, 우리가 간다!'로, 책을 매개로 가족의 일상과 놀이·문화·환경을 연결하는 참여형 독서축제다. 2013년 시작된 '온 가족 책 잔치'는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행사로, 독서와 소통을 결합한 가족 친화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 23개관을 비롯해 지역서점, 학교 독서동아리가 함께 참여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 세대가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지역과 도서관이 어우러지는 시민 중심의 독서문화축제로 발전했다는 평가다.

행사장은 ▲가족 공연과 시상식이 열리는 '북스타 스테이지' ▲도서관별 체험 부스가 있는 '오순도순 빌리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정원' ▲생태전환교육을 담은 '초록의 서재'와 '지구 수비대'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멍 Book Talk 힐링존' 등 8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감이 인증하는 '책 읽는 온 가족' 시상, 성남고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북퍼퓸·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활동, 태극 스티커 제작과 한글 퍼즐 찾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은 "온 가족 책 잔치는 책 읽기의 즐거움에 놀이와 체험을 더해 독서의 의미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자리"라며 "가족이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캄보디아 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조기 귀국

오는 20일까지 귀국 완료 예정

경기도가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 현지 치안 악화로 조기 귀국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결정하고,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했다.

'경기청년기후특사단'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34명으로 구성돼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에 파견됐다. 특사단은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문화교류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외교부가 캄폿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5단계 수준)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견지를 변경해 캄퐁스페우와 시엠립 지역으로 이동했다. 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비교적 치안이 안정돼 있고, 프놈펜 공항과의 접근성도 좋아 출국이 용이하다.

경기도는 특사단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부터 외교부에 안전 협조를 요청하고 현지 상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안전 문제에는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귀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불가피하게 봉사활동 기간이 단축되지만, 특사단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국제협력국에 지시했다.

한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올해로 2기째를 맞는다. 이번 2기는 캄보디아(34명)와 라오스(35명)에서 활동 중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인하대 평생교육 거버넌스 출범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15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인천 평생교육 거버넌스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인하대가 재능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인천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였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남식 재능대 총장,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대학·평생교육 관계자들은 발대식에 참석해 지역기반 평생교육 협력의 방향을 공유했다.

세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도 진행하며 ▲인천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대학·평생교육기관 연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 ▲지역 내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RISE 사업과 연계한 지역혁신 인재양성 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진 기자

남산도서관, 이용자와 '청렴' 의미 되새긴다

'청렴 소통계단' 조성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관장 고영갑)이 '청렴 소통계단'을 조성하며 도서관 내 소통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들이 함께 공감하며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16일 남산도서관에 따르면, '청렴 소통계단'은 청렴, 희망, 행복 등을 주제로 한 명언이나 좋은 글귀를 계단에 부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다. 지난 8~9월 시민 공모를 통해 총 11개의 문구가 선정됐으며,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427명의 이용자와 직원이 참여했다.

계단에는 ▲"욕심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톨스토이) ▲"양심과 진실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말라"(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청렴과 정직을 주제로 한 글귀가 새겨졌다. 이를 통해 계단은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이용자들이 매 순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에 '청렴 소통계단'이 조성됐다. /남산도서관

고영갑 남산도서관 관장은 "이용자들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청렴 소통계단은 서관이 지역사회와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지역 역사·정체성 담은 '광명역사관' 개관

1000여 점 유물 보관·전시

광명시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광명역사관'을 공식 개관했다.

시는 지난 15일 광명문화원에서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과 '광명시 학술포럼'을 열고 광명의 역사적 가치와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광명역사관은 광명문화원 2층에 자리한 광명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으로, 시민이 기증한 고문서 700여 점과 민속품 300여 점 등 1000여 점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전시 공간은 ▲상설전시실 ▲보이는 수장고 ▲실감영상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이 광명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정원용, 무의공 이순신, 오리 이원익 등 광명의 대표 인물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향후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역사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미래세대에 이어지길 바란다"며 "역사관이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역사관은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 정식 개관했으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